

# 해외유출 전적문화재 어떤 것들 있나

## 외규장각도서 반환논의 계기로 살펴본 在外 한국고서 실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를 계기로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古書의 존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프랑스를 비롯해 구소련, 미국, 일본과 중국, 대만, 영국, 심지어 독일이나 네델란드, 스웨덴,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옛전적들은 적게는 몇백책에서 많게는 수천책까지 각국의 도서관 등에 상당한 수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

이 책들은 어떤 경우로 수만리도 더 떨어진 그곳으로 가게 되었으며, 간 후에는 그곳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직지심경」처럼 세계 최초의 활자본으로 인정받는 영예를 누린 책도 있겠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본 이들의 말에 의하면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책은 서가에 꽂히지도 못한 채 냉랭한 지하 서고에서 곰팡이와 책벌레에 갇히면서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 가장 많은 우리 고서가 있는 일본

외국에서 우리나라 귀중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최근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프랑스이다. 먼저 일본의 경우는, 심우준(중앙대·精文研 객원) 교수의 85년도刊 「日本傳存 韓國逸書研究」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일본에는 경향 각지의 많은 文庫들에서 수많은 우리의 귀중전적들을 수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동경에만도 궁내청 書陵部를 비롯해 내각문고, 존경각, 동양문고, 대동궁문고, 정가당문고, 일본국회도서관, 도변문고 등과 지방의 봉좌문고, 천리도서관, 족리학교 유적도서관 등도 우리의 고서들로 유명한 곳이다.

이 문고들에 소장된 한국판 전적들을 조사했던 저자는 “그 질의 우수함과 그 양의 방대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소감을 머릿말에 적고 있는데, 이들 문고 외에도 일본의 곳곳에는 우리의 전적들이 적잖게 흩어져 있을텐데, 그 수가 얼마인지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그 규모의 편린이 될 만한 심우준 교수의 당시 작업일지를 참고하자면, “1975년 8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조사한 양만 해도 활자본의 경우 漢籍한국판 224종, 韓籍한국판 116종, 목판본의 경우 漢籍한국판 117종, 韓籍한국판 123종 도합 580종에 달했다”고 해 전체의 규모를 대충 어렵해 볼 뿐이다.

윤병태(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79년 「신동아」에 기고한 「우리나라 貴重圖書의 現住所」 글은 다소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나 일본소재 우리고서의 행방을 보다 상세하게 알려준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날권 몇책밖에 남아 있지 않는 「고려대장경」도 일본에는 처음 새겨서 찍은 初彫대장경과 두번째 새겨 찍은 再彫대장경의 완전한 秩책이 여러벌 남아 있다. 이처럼 주요한 서책들은 주로 “임진왜란과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은 수가 건너간 것으로 이야기된다.

특히 임진왜란 때 일본장수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간 책은 개인도서관을 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나고야에 있는 봉좌문고는 그 대표적 예다. 이 문고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집 중의 하나인 「拙菴千百」과 같은 책을 비롯하여 1백여 종의 귀중본이 남아 있다. 왜장 중에는 부하들에게 책을 나누어준 경우도 있는데, 내각문고나 정가당문고 같은 것이 그런 경우로 생긴 문고들이다.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귀중본들이 일본으로 방출되어 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제시대 때 유출된 한적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는 동경대학의 白山黑水文庫가 있다.

일제 때 관리 중에는 책을 모은 사람이 더러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前間恭作은 「古鮮冊譜」라는 우리나라의 방대한 고서서지를 편찬하기도 하였는데, 그가 모은 책은 재산루문고라 하여 지금은 동경에 있는 동양문고에 있다. 또한 奈良의 천리도서관에 있는 책은 일제시대 한국사학자였던 今西龍 같은 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귀중서들로 채워진 경우. 그는 「삼국유사」의 글자를 고쳐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한 성귀당 문고는 언론인이었던 德富蘇峰이 수집한 우리 고서를 모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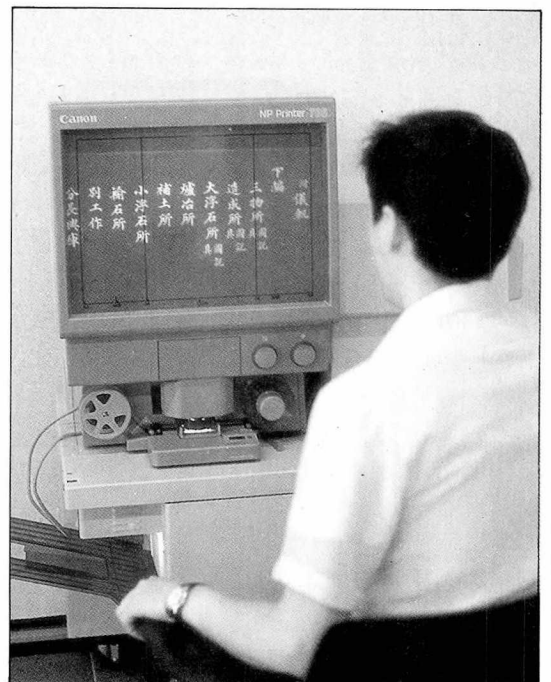
일본 동경대학에 지금 남아 있는 阿川문고, 경도대학에 있는 河合문고, 천문 수학에 관한 책만 모은 新城문고, 구주대학과 仙臺에 있는 興讓館문고, 의서와 방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사카의 武田杏雨書室, 국립국회도서관, 오사카 부립중앙도서관 등도 우리나라 귀중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 어이없는 것은 일본의 재벌이었던 三井家에 있던 우리나라 귀중본 등은 2차대전 후에 배상의 일환으로 미국에 양도되어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다는 사실이다.

### 중국과 대만, 프랑스에 있는 우리 옛책들

중국의 경우 본토에 있는 북경도서관이나

해외에 유출돼 있는 우리 古書 중에는 국학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서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금의 실정은 구체적인 소재지는 물론 그 대략적인 종수, 목록조차 파악되지 못한 것이 수두룩하다. 이번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를 계기로 해외 고서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취경원원소도감의계」 상권을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이 화면으로 검색하고 있다.



북경대학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이 많은 우리 고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종수나 책의 목록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반면, 대만에는 많은 책이 남아 있다. 고궁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대만대학도서관, 그리고 그밖의 여러 대학도서관에 우리나라 귀중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목록도 간행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는, 윤병태 교수의 말에 의하면 “서로 사신이 오가는 등 일찍부터 우리와 잦은 교류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보아 적지 않은 책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역시 내란과 외침으로 많은 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고서도 같은 운명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내 우리책의 상태를 밝힌다. 하지만 아직 국교수립이 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라곤 거의 없다. 다만, 중국 연변의 ‘고적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대략 “3만4천여책(?—연변에서 자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의 엄청난 수가 수장돼 있는” 중국내 우리 고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한편,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우리와 결코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귀중본이 가 있는 것이 의아할 정도인데 서지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들은 지금도 일부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프랑스에는 일본 다음으로 많은 책이 있다 한다. 특히 佛국립도서관이나 동양어학교도서관

에는 한말이나 일제 때 신부들이나 선교사, 일본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수집해간 책들과 문서들이 많이 수장돼 있다고 하는데, 일부목록만 공개돼 있다.

다만, 흥미있는 기록 하나를 소개함으로써 당시의 한 프랑스인이 어떻게 한국고서에 관심을 기울였고, 경위야 어찌되었건 간에 당시 이미 유럽에 건너가 있던 우리 고서의 행방을 약간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겠다. 「조선서지」의 저자로 유명한 모리스 꾸랑의 「한국의 서지와 문화」 가운데 일부분. “휴가를 얻어 유럽에 머무는 동안 나는 주요 한국고서 수집처를 여러곳 방문했다. 파리에서는 1866년 로오즈계독 원정기념물인 국립도서관의 도서와, 1888년 바리에 의해 수집되어 오늘날 귀비박물관에 보관된 도서를 열람했고, 런던에서는 대영박물관 소장의 주요 수집도서를 면밀히 열람했다. 불행히도 성 표들부르크에 있는 한국고서는 아직 분류가 되어 있지 못해 목록을 구할 수가 없었다. 도쿄의 서점, 소오지, 우에노도서관 등에서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재미있는 책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미국과 소련에 흩어져 있는 귀중본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귀중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여러곳이 있다. 그중 하버드 대학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몇해전 이곳으로 연구차 갔던 이상택(서울대 국문과) 교

# FunRun



시대가 아파 .....

오솔길을 따라 허적허적 접혀진 지형도 기형도 —

## 마루벌이 소중한 여기는 일들

- 디자인 / 표지 · 본문 · 광고 · 카드로그
- 편집 / 사보 · 잡지 · 단행본 전문
- 출력 / 매킨토시 출력
- 제판 / 일색 · 단색제판
- 제작 / 인쇄 · 규팅 · 제본

♥ 방문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제작한 서체검본집을 드립니다.

# 마루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701-2391(대표) Fax:701-2395

수는 연청도서관에만도 대략 2만여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연구대상이었던 고소설 분야는 40여종이 소장돼 있는데 그 중에는 유일본을 포함한 희귀본도 여러편 있다. 예를들어 「金允傳」「閔時榮傳」「宋婦人傳」「玉蘭奇緣」「劉生傳」「中山望月傳」「昌蘭好緣」「花門孝行錄」「華山重逢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유일본이거나 또는 설사 국내에 동종의 異本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편이하거나 善本에 해당하는 희귀본들이다.

워싱턴에 있는 의회도서관에도 상당수의 귀중도서가 있다. 이 도서관에서 9·28수복 즉시 서울에 들어와 규장각에 남아 있던 기록류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간 일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콜롬비아대학에도 아시아도서관이 있어 우리나라 고서나 귀중서를 많이 모아놓고 있다. 1960년대에 華山書林이 가지고 있던 귀중한 활자본을 포함한 고서를 구입하려다 그 일부만 가져가게된 사건은 한참동안 신문에 오르내린 적도 있다. 이밖에도 워싱턴대학 하와이대학 등 수많은 도서관에 우리나라 귀중서가 산재해 있다.

한편, 소련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고서는 본지 76호(90년 8월5일자) 「알마아타 한국고서에 어린 민족혼」 제목의 기사에서 비록 푸쉬킨대학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목록이 처음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대체로 소련내의 우리 고서는 가장 많은 종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레닌그라드도서관을 비롯해(역시 구체적인 종수와 목록 등은 알 수 없다) 모스크바도서관 등 대륙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알마아타 푸쉬킨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고서는 9백여권, 발간연도는 대부분이 구한말인 1880년대부터 1910년대 초 사이로 비교적 최근의 서적들인데, 서지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개가 국내에 있는 것들로 발간년대가 늦어 서지학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책은 별로 없다”고 한다. 하지만 문집류 가운데 「錦汀集」「勉齋集」「藥劑集」 등과 유길준의 「노동야학」과 안국선의 「연설법방」 등 교과서류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책은 국내에서도 흔치 않는 것으로 꼽힌다.

또한, 하바드대학교의 중앙도서관에 해당하는 와이드너도서관에는 소련과학원에서 간행한 소련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고소설 목록(40여종) 복사본이 보관되어 있어 소련의 우리 고서들의 흔적을 멀리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이상에 언급한 외에도 영국의 영국도서관(예전 대영박물관 일부), 독일의 괴팅게도서관, 네델란드·스웨덴의 왕립도서관, 로마의 법왕청도서관 등에도 적잖은 우리나라 고서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국가의 지원없이 할 수 없는 방대한 사업

이상에서 보듯 대략적으로나마 정리해본 해외에 있는 우리 고서들의 현황은 ① 관심분야의 필요한 책을 찾아 외국으로 연구차 가거나 ② 알음알음의 소문을 통해 뜻밖에 우리 고서의 행방을 듣거나(독일의 어느 대학도서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하는데, 그 사람이야기가 서고에 韓籍이 있더라는 등) ③ 서지학자 개개인이 사재를 털어가며 현지에서 가 목록을 복사해 오고 슬라이드로 찍어오는 등으로 해서 밝혀진 것들을 “줍어들은” 것의 종합일 뿐이다. 그래서 빠진 부분도 상당할 텐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만큼 이 방면의 연구가 체계적이지도, 집중적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연세대 문헌정보학과와 정형우교수는 “적어도 우리의 고서들이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정부에 여러차례 지원요청을 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했다”며 일본 정도나 소재가 밝혀졌을까 모르고 있는 것이 태반이라고 말한다. 천혜봉 교수도 “약탈해 가거나 돈주고 수집해 가는 책은 적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귀중서가 적잖게 들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유권의 문제는 미묘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국학 연구에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에는 최근 돌아온 「徽慶園園所都鑑儀軌」 상권을 포함한 해외에 있는 주요 일반고서 2,842종 6,012책(617롤), 귀중서 694종 2,835책(106롤)을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일반연구자들이 찾아볼 수 있게 해놓고 있다. 도서관측이 해외에서 직접 사가지고 왔다는 이 마이크로필름은 정부측에서 기울이는 해외 고서에 대한 첫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를 계기로 학자 개인의 수고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해외유출 고서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학자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은다.

— 정혜옥 기자